

전통사찰, 문화·관광·복지 거점으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전통사찰 발전 제안서' 펴내

전통사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56가지가 담긴 제안서가 나왔다.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소장 김중서, 이하 연구소)는 최근 <전통사찰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서 >(이하 제안서)를 펴냈다. 제안서는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추진한 <전통사찰 전수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기획돼 2010년 2-5월 연구소 연구원들이 전통사찰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 분석과 전통 사찰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김중서 소장은 머리말에서 "오늘날 전통사찰이 처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발전기회이다. 철저한 보존 원칙에 입각한 신중하고 지혜로운 발전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제안서를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제안서의 주된 초점을 추상적인 이론 제시가 아닌 전통사찰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뒀다"고 말했다.

제안서는 1)전통사찰의 현대적 의미와 중요성 2)전통사찰 정책 개발 3)전통사찰 발전 정책 4)시범사찰과 거점 발전 전략 5)전통사찰의 홍보 방안 및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 6)전통사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사업 및 활용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56가지의 전통사찰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제안마다 1-2 페이지 분량으로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개조식으로 기술돼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연구소는 전통사찰 발전 정책을 ①지역문화의 거점 ②새로운 관광의 거점 ③교육 및 복지 거점의 큰 틀로 나눴다. 이 세가지 기본틀 위에서 시범사찰을 선정해 거점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연구용역, 홍보, DB 구축 및 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이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산수음악화, 시낭송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의례문화 재현 행사, 불교문화콘텐츠 체험 행사, 사찰음식 체험 행사 등 불교문화 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이 새로운 관광거점이 되려면 수행과 수행이라는 전통사찰의 본래 목적과 사찰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체험 및 일체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테마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육 및 복지 거점으로서의 전통사찰을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교육·복지 기능을 살려 문화강좌·대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다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소는 아버지 학교·부부 학교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전통사찰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찰은 전통사찰이 지닌 자연미와 문화적 다양성, 역사적 고유성을 '사찰과 자연' (및 [美]과 어울림 [和]), '사찰과 문화' (선 [禪], 맛 [味], 의식 [齋]), '사찰과 역사' (사 [史], 이야기 [談], 만남 [緣]) 등 세가지 테마, 8가지 키워드로 유형화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찰과 자연' 테마에서 '멋'은 자연·생태 환경 등이 빼어난 사찰을 환경교육, 체험관광 등으로, '어울림'은 환경과 사람, 전통과 현대 등이 잘 어우러진 참사가 문화의 거점으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사찰을 선정·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찰과 문화' 테마에서 '선'과 '맛'은 각각 한국불교 선맥과 사찰음식 등의 보존 및 세계화를 '의식'은 법패, 승무 등 예술적 가치를 지닌 불교의식을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사찰과 역사' 테마에서 '사람'은 전통사찰과 역사적 인물을 토대로 사찰 역사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로 기획하며, '이야기'는 설화, 민담 등을 간직한 사찰을 중심으로 답사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또, '만남'은 불교의 초전지 등 한국과 불교의 만남, 불교와 토착문화, 이웃종교와의 만남이 이뤄진

전통사찰을 발굴해 특화시키자는 계획이다.

전통사찰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의 가치에 대한 홍보는 사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반"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다양한 유형의 전통사찰 홍보 책자 발간 △전통사찰 배경의 다큐멘터리 제작 △불교문화 멀티미디어 자료관 구축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전통사찰 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사찰 주변 환경, 템플스테이 효율화 방안, 불교의 이미지 조사 및 이미지 개선 방안 등 전통사찰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정부의 전통사찰 지원이 불교계에 대한 편향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전통사찰 발전의 당위성도 담겼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정책은 종교에 대한 간섭도 종교간 차별도 아니다. 문화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길"이라며 "종교문화의 민족 문화적 공동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 구체화하는 것은 고급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화사 제26대 주지 성문 스님 진산식 봉행 대구 동화사는 6월 26일 제26대 주지 성문 스님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법일 대구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혜를 모아 원용 화합하는 팔공산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담아 선지식도량인 새로운 팔공산 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 세계 홍보 나선다

자승 스님, 7월 캄보디아·9월 美 뉴욕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해외복지시설 지원과 한국불교 홍보를 위해 캄보디아와 미국을 순방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9-23일 캄보디아를, 9월 16-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의 캄보디아 방문기간 동안 노로돔 시아모니 (Norodom Sihamoni) 국왕과 훈센 (Hun Sen) 총리, 캄보디아 불교 종정 태풍 스님을 만나 한-캄보디아 간 우호증진과 불교문화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또 로터스월드(이사장 성평가 시애틀에서 건립 중인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아동센터의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7월 BWC센터를 방문해 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9월 16-22일 미국 뉴욕 순방기간 동안 자승 스님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미국 동부지역 간담회, 뉴

욕지역 대법회 참석을 통해 미주불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9월 20일 뉴욕 맨하튼 스카이라이트에서 사찰음식의 날 행사와 템플스테이 국제 홍보 등을 펼친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 스님의 이

따른 해외 순방은 지난달 한·일불교대회 참석에 이어 국제사회와도 소통의 기회를 폭넓게 가져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 사찰음식 현장설명회 열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사찰음식연구단(단장 효탄)이 7월 1일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에서 '2010년 대구·경북지역 사찰음식현황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부는 2010년 지역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중화와 세계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지역현황조사사업의 가장 핵심인 현장방문조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 동화사 6대 신내암자인 양진암의 정목 스님과 원정 스님은 식발·목욕일에 특별식으로 먹는 상추전을 시연했다. 문화부 최소영, 강경우 연구원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조리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전국 전통사찰 현황 최초 정리

조계종 문화부 '한국의 전통사찰' 발간

전국의 전통사찰 934곳을 전수조사해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효탄)는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전통사찰 현황보고서-한국의 전통사찰> 등의 발간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계종 문화

부 직원들이 2009년 12월~2010년 5월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물로 불교계 최초로 전체 전통사찰의 현황이 망라돼 있다.

2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전통사찰>은 사전류 형식의 보고서로 전통사찰 934곳(2010년 5월 기준)을 대상으로 기본 행정·문화재·건축 현황, 사찰 특징을 알려주는 문서자료와 사찰 사진 등을 수록했다. 또,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도

별·종단별 통계와 다양한 분류의 색인을 첨부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한국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자료로 관련 기관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통사찰>에 따르면 경상북도(175곳)와 전라북도(114곳)의 전통사찰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58곳, 부산 30곳, 대구 18곳, 인천 8곳, 광주 5곳, 대전 4곳, 울산 11곳, 경기 100곳, 강원 46곳, 충북 82곳, 충남 81곳, 전북 114곳, 전남 95곳, 경북 175곳, 경남 95곳, 제주 12곳의 전통사찰이 분포했다. **조동섭 기자**

단식·참선 삼매체험 집중수련

5월/30일 / 50일/100일

상사에서 참선 단식 다이어트

금강단식 온단식 : 국민단식으로

무겁고 어두운 몸과 마음을 단식과 참선(화두)로 대전환 한다.

◆ 행복참선학교 : 토요일 10시 30분

기적의 금강단식
단식참선의 획기적 효과

- 바로 끊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고효율 당뇨 체질개별 해독 피부미용 여드름·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주, 금주, 위장, 대장, 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창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전성이 바뀜.
- 심신개별,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단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과 사고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릴 단기출가 선 수행 프로그램인 "단비"를 운영한다.

<특징>

- ㉠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호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 ㉡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 ㉢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 ㉣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단기출가 4박 5일 일정

차수	날짜	대상	장소	회비
1차	7.17 ~ 7.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신청회비 60만원 (장려금 20만원 지급, 10일간 신청완료, 10만원지급) *1차에 한하여 3일 전 적용
2차	7.23 ~ 7.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3차	7.20 ~ 8. 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4차	8. 6 ~ 8. 10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5차	8. 12 ~ 8. 16	청소년, 대학생, 일반	제주 원명선원	
매일정기 1회 실시	9. 19 ~ 9. 23 10. 22 ~ 10. 26 11. 26 ~ 11. 30	청소년, 대학생, 일반 청소년, 대학생, 일반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날짜	기간	날짜	기간
7. 17 ~ 8. 14	30일	11. 12 ~ 12. 11	30일
7. 17 ~ 9. 4	50일	11. 12 ~ 2011. 1. 1	50일
		11. 12 ~ 2011. 2. 26	100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수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을 끌어 올려 영원한 삶으로 바뀌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음은 절음대로, 황혼은 황혼대로 감진 삶으로 인도해 줄 단기 참선출가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룹니다.

문의신청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활인인선禪원院 (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